40년 인연 이어온 백추자·이정옥·문현철씨가 기억하는 법정스님

9일 '베토벤'에서 이정옥·문현철·백추자〈사진 왼쪽부터〉씨가 '입안에 말이 적고, 마음에 일이 적고, 뱃속에 밥이 적어야 한다'는 법정스님의 자필 글귀를 보며 스님을 추억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스님이 전한 긍정의 삶 가득하길"

'무소유 실천' 법정스님 입적 3주기

"말씀·글·생활 일치… 인생의 등불"

세상은 내편이 아닌 것만 같았던 고등학생 시절, 불같이 들끓는 문학의 열기를 잠재우지 못했던 여대생 시절, 정신적 스승을 찾고 싶었던 20대 후반의 어느날 '세 사람'은 운명처럼 법정 스님을 만났다.

이후 30~40년 세월 동안, 스님은 살아가는 힘을 준 든든한 후원자였고, 세상사 헷갈릴 때 길잡이가 돼어준 등불이었다.

11일은 법정 스님이 입적한지 3년이 되는 날이다. 송광사 불일암 시절, 스님이 가끔씩 머물다 가곤 했던 클래식음악감상실 '베토벤'에서 9일 스님을 기억하는 이들을 만났다.

'스님은 정말 말씀과 글과 생활이 하나였다'고 회고한 이들은 "말년에는 자주 뵙지 못했지만 늘 스님이 함께 한다는 생각에 삶에 대한 자신감과 자존감을 얻었다"고 말했다.

스님이 건네준 장학금으로 대학을 마친 문현철(48·초당대 교수)씨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읽은 '산방한담'을 통해 스님을 처음 만났다.

"베토벤에서 처음 직접 뵀는데 아주 살가우신 분은 아니셨어요. 수행자 특유의 강직함과 카리스마가 있었죠. 불일암 툇마루에 앉아 늘상 스님에게 고민을 털어놓곤 했는데 꾸중도 많이 들었어요. 스님과의 대화에서, 또 스님의 책을 통해 제가 배운 건 긍정적 사고예요. 왜 사람이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하는지, 왜 항상 희망을 이야기해야하는지, 늘 새롭게 시작해야 하는지에 대해 언제나 이야기하셨습니다."

문씨는 특히 "기도와 글쓰기에 대해 자주 말씀 하셨다"고 전했다.

"100일 동안 기도를 하면 내가 왜 고민하고 있는지, 무엇이 문제인지 해법을 얻을 수 있다고 하셨어요. 또 문제를 제대로 들여다보려면 글을 쓰라고 하셨죠. 그래서 아침마다 일기를 쓰곤했습니다."

1979년 '서 있는 사람들'을 읽고 무작정 불일암으로 스님을 찾아갔던 베토벤 주인장 이정옥(58)씨는 "자연에 눈뜨게 해주신 점"을 귀한 자산으로 여긴다고 했다.

"어느 여름날, 해질 무렵 얼른 나와서 달맞이꽃을 보라 하시더라구요. 꽃이 후드득 펼쳐지는데 신비와 경이로움을 느꼈어요. 스님께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자연을 가까이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워낙 독서량이 많으셔서 책읽기 숙제도 많이 내주셨구요. 무엇보다 '만족할 줄 아는 삶'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셨어요. 불평, 불만이 많으면 정신이 쪼개지는 거라고, 적은 것으로 만족하고, 늘 욕망을 채우는 삶이 아니라, 의미를 채우는 삶이어야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시인 백추자(68)씨는 숙대 불문과 시절 스님과 연을 맺었다. 스님의 책 '영혼의 모음' 교정을 보기도 했고, 유학 시절에는 파리 길상사 초대 신도회장을 맡기도 했다.

스님이 보내준, '시시하게 시들지 말고 늘 싱싱하게 살아라. 날마다 새롭게 살아라'는 내용의 엽서와 스님과의 대화는 평생 그녀 인생의 나침반이었다. 백씨가 마흔 여섯의 나이에 열다섯 아들을 데리고 프랑스로 떠나 9년간 공부하며 박사 학위를 받을 수 있었던 것도 늘 그 '좌표'를 떠올렸기 때문이었다.

"스님은 저에게 아버지같은 분이셨어요. 힘들 때 스님을 만난 것도 그렇고, 전 이 세상에 많은 빚을 지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저 아이들에게 나는 어떤 존재여야하는가, 아이들이 삶의 중심을 찾아가는 데 어떤 도움을 줄 것인가 많이 고민해요. 그게 스님에게 조금이라도 보답하는 길이라는 생각입니다." (문현철)

세 사람은 스님이 전한 긍정과 희망, 욕심 내지 않는 자족하는 삶, 늘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가짐이 세상에 가득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오락가락 날씨에 지자체 봄꽃축제 준비 골머리

개화시기 늦어져 일부 축제 연기… "꽃 없는 꽃 축제될까" 걱정

꽃샘추위가 기승을 부리는가 하면 낮 최고 기온이 26℃까지 치솟는 등 오락가락하는 봄날씨로 봄꽃 축제를 준비하는 전남지역 일선 시군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개화 시기를 맞추지 못하면 '꽃 없는 꽃 축제'를 열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상 기후로 봄꽃 개화시기가 늦어지면서 전남지역 일부 봄꽃 축제를 1주일가량 연기하는 등 들쭉날쭉한 개화 시기로 '봄꽃 축제의 기상도'가 변하고 있다.

광양시는 10일 "꽃축제의 시작을 알리는 광양 국제 매화 문화 축제를 오는 23~31일 축제를 열기로 했다"고 밝혔다.

16번째를 맞지만 개막일은 올해가 가장 늦다. 광양시는 통상 매화가 경칩(3월 5일) 1주일 뒤에 피는 점을 고려해 오는 16일 개막을 검토했지만 지난해의 경험을 떠올려 그보다 1주일 뒤로 미뤘다. 지난해에는 3월 17일 개막했다가 꽃이 피지 않아 관람객의 불만이 폭주했다.

실제 지난 9일 광주지역의 낮 최고 기온이 26.8℃를 기록해 1948년 기상관측을 시작한 이래 3월 중 최고기록을 갈아치웠고, 최근 일교차도 10℃이상 차이가 나고 있다. 전남지역도 대부분 포근한 날씨를 보여 화순 27.5℃를 최고로 영암 26.5℃, 순천 22.9℃, 목포 22.3℃, 여수 17.3℃를 기록했다.

하지만 하루가 지난 10일 낮 최고 기온은 광주 11℃ 목포 5.4℃로 뚝 떨어졌다.

요동치는 봄 날씨에 다른 지자체들도 축제 일정을 고심 중이다. 오는 29~31일 열리는 구례 산수유 축제도 지난해(3월 23~25일)보다 1주일가량 늦춰졌다. 매년 4월 초에 열리던 목포 유달산 축제(13~14일)와 여수 영취산 진달래 축제(12~14일)도 연기됐다.

자치단체의 한 관계자는 "축제 일정은 늦어도 20일 이전에는 확정해 홍보를 해야 하는 데 이상 기후로 꽃피는 시기가 해마다 달라져 골머리를 앓고 있다"면서 "최근 날씨가 따뜻해 꽃이 갑자기 피어나는 등 일정 잡기가 힘들다"고 말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박정렬기자 halo@kwangju.co.kr

■ 전남지역 봄 축제 일정

지역	행사명	날짜
광양	국제 매화 문화 축제	3월23~31일
구례	산수유꽃 축제	3월29~31일
완도	청산도 슬로우걷기 축제	4월1~30일
영암	왕인 문화 축제	4월5~8일
목포	유달산 꽃축제	4월13~14일
고흥	우주 항공 축제	4월18~21일
신안	튤립축제	4월19~28일
나주	홍어축제	4월20~22일
진도	신비의 바닷길 축제	4월25~28일
함평	나비 대축제	4월26일~5월8일
완도	장보고 축제	5월3~5일
담양	대나무 축제	5월3~8일
보성	다향제 녹차 대축제	5월14~19일
화순	힐링푸드 페스티벌	5월16~19일
곡성	세계 장미 축제	5월24~6월2일
장성	홍길동 축제	5월24~26일
고흥	녹동 불꽃 축제	5월 중
여수	거북선 축제	5월 중
순천	낙안 민속문화 축제	5월 중

광주·전남 협동조합 123개 안착 관심

법 시행 100일만 전국 두번째… 컨설팅·자금 지원돼야

협동조합의 설립과 운영 방안을 담은 협동조합기본법이 발효된 지 100일 만에 광주·전남 지역에서 123개의 협동조합이 꾸려졌다.

이에 따라 시장 중심과 정부 주도 경제체제라는 양극단의 한계를 보완해 줄 대안경제모델인 협동조합이 성공적으로 안착할 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지방자치단체와 정부부처로부터 협동조합 신청·처리현황을 집계한 결과 10일까지 일반 협동조합 신청이 605건 접수됐다.

이 지역에서도 재래시장, 골목가게 등 중소상인들이 뭉쳐 골목상권 지키기에 나섰고, 다문화 가정, 저소득층 아동, 노인 등 사회적 소외계층을 위한 협동조합도 결성됐다.

지역별로 일반협동조합 신고 현황을 보면 서울이 174건으로 가장 많았고 광주(95건), 경기(68건), 부산(50건), 전북(33건), 전남(28건), 경북(25건), 강원·대전(각 21건) 등의 순이었다.

광주의 제1호 협동조합인 '더불어樂'은 광산구 월곡동 소재 노인복지관 회원들이 주도하는 취약계층 일자리 사업을 하게 된다.

하지만 시행착오의 그늘도 적지 않다. 협동조합이 아직 우리 사회에 낯선 경제모델인 탓에 조합 결성에 나선 경제적 주체의 역량이 미비하고 협동조합을 둘러싼 사회경제적 인프라도 미흡한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협동조합이 창업 초기 안착할 수 있도록 컨설팅과 자금 지원이 필요하고 나아가 협동조합과 시민사회, 정부간 거버넌스(협치) 구축이 필요한 때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강운태 시장 11~17일 독일·중국서 투자유치

강운태 광주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광주시 투자유치단이 11일부터 17일까지 독일과 중국 등을 방문한다.

광주시 투자유치단은 오는 12일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수출 및 KOTRA와 업무협력 협약을 체결한 뒤 13일에는 쾰른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치과기자재 전시회인 국제치과전시회(IDS)를 방문, 치과산업 관련 기업인들을 만나 치과산업을 이끌 혁신기술과 관련 제품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아울러 전시회에 참가한 기업 중 광주 치과산업 클러스터에 입주를 희망하는 해외 기업들과 투자 및 수출 협약을 체결한다. 이어 16일에는 홍콩에서 환경설비 분야 대규모 투자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홍행기기자 redplane@kwangju.co.kr

8일(현지시각) 뉴저지주 해켄색에 있는 버겐카운티 법원 앞에서 미국 정치권 인사와 한인단체 관계자들이 '위안부 기림비'를 제막하고 있다. /연합뉴스

美 뉴저지주에 '위안부 기림비'

버겐카운티 정부 주도… "일본 잔학행위 반대" 강조

'세계 여성의 날'인 8일(현지시각) 미국에서 또 하나의 일본군 위안부 기림비가 세워졌다. 기림비를 만든 주체는 뉴저지주 버겐카운티 정부다. 미국에서 네번째 기림비이지만 한인사회가 주도한 기존 기림비와 달리 미국의 지방정부가 직접 만들었다는 데 특별한 의미가 있다.

버겐카운티 정부는 이날 오후 3시 뉴저지주 해켄색에 있는 카운티 법원 앞의 '메모리얼 아일랜드'에서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에 희생된 위안부를 추모하는 기림비의 제막식 행사를 열었다.

행사에는 빌 파스크렐(민주·뉴저지) 연방 하원의원 등 미국 정치권 인사와 한인단체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했다.

캐서린 도너번 버겐카운티장은 "지난해 10월 경기도 광주 '나눔의 집'을 방문한 자리에서 위안부 할머니들의 이야기를 듣고 깊은 감동을 받았다"며 "이 기림비는 일본에 대한 반대가 아니라 2차대전 당시에 있었던 잔학 행위에 대한 반대"라고 강조했다.

버겐카운티는 기림비 동판에 "2차대전 당시 일본 제국주의 군대에 의해 '성노예'(sexual slavery)로 강요당한 한국과 중국, 대만, 필리핀, 네덜란드, 인도네시아 출신의 수십만 여성과 소녀들을 추모하며"라는 글을 새겼다.

이번 기림비는 미국의 지방정부와 의회가 정파를 초월해 건립을 합의했고 미국 시민들이 자발적인 모금운동을 거쳐 비용을 조달했기 때문에 일본이 개입할 여지가 원천적으로 차단됐다는 데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연합뉴스

(재)호남지역사업평가원 제 2013-06호

(재)호남지역사업평가원
지역산업평가단장 채용공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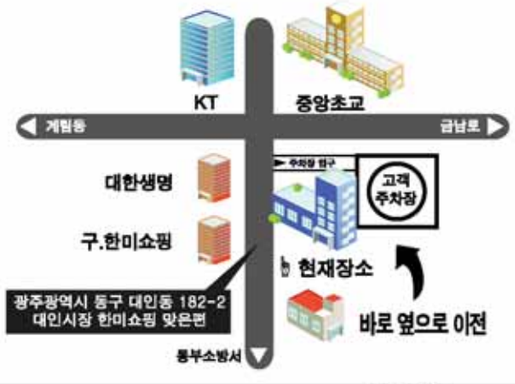
(재)호남지역사업평가원은 호남광역경제권 선도산업육성사업과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 등 지역산업지원사업에 대한 공정하고 체계적인 평가와 관리 및 효율적인 추진을 목적으로 지식경제부가 출연한 재단법인입니다.
법인에서는 광주광역시, 전라북도, 전라남도의 특화사업 등 지역산업지원사업의 평가·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지역산업평가단장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 합니다.

1. 채용분야

부 서	직 위	채 용 분 야	상주 근무지
광주지역산업평가단	단 장	특화사업 등 지역산업지원 사업의 평가·관리 총괄	광주 북구
전남지역산업평가단			전남 목포
전북지역산업평가단			전북 전주

2. 임용조건 : 가. 임기제 : 3년, 계약직 나. 보 수 : 법인 규정에 의거 지급
※ 임용일은 부서에 따라 다름
3. 자격요건
가. 공통사항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34조가 정한 결격 사유가 없는 자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자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기준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나. 응시자격
○지역산업·지역경제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박사학위 취득 후 10년 이상 관련분야 근무경력자
○석사학위 취득 후 15년 이상 관련분야 근무경력자
○학사학위 취득 후 18년 이상 관련분야 근무경력자
○평가단장으로서의 비전제시 및 리더십, 교양과 인품 등의 인성과 윤리의식을 갖춘 자
○기타 직무를 수행할 자질과 능력을 갖춘 자
4. 전형방법
가. 1차 : 서류심사(합격자 개별통보) 나. 2차 : 면접심사
5.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소정양식) 1부 나. 이력서(소정양식) 1부
다. 자기소개서(소정양식) 1부 라. 운영계획서(자유양식) 1부
마. 경력 및 재직증명서 각 1부
바. 최종학교 졸업증명서(학위증명서 또는 학위증) 1부
사. 자격증 또는 면허증 사본 각 1부
※ 소정양식은 (재)호남지역사업평가원 홈페이지 (http://honam.leading.or.kr) 본 공고문에서 다운로드하여 활용
6. 응시원서 접수 : 가. 접수기간 : 2013. 3. 25(월) ~ 3.29(수), 18:00까지
나. 접수방법 : 방문 또는 등기우편(접수마감일 18시 이전 도착에 한함)
다. 접 수 처 : (재)호남지역사업평가원 운영지원실
(500-706)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 333(대촌동, 광주테크노파크) 본부동 4층
7. 기타사항
가. 전형결과는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지하고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나. 제출된 서류상의 기재착오, 누락, 연락불능, 제출서류 미비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다. 최종합격자 결정 후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신원조회 결과 결격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용을 취소합니다.
라. 전형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 모집 관련 문의처 : 전화 062)602-7152, 팩스 062)602-717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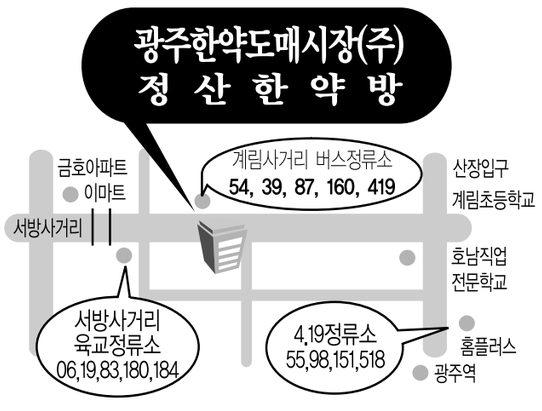
2013년 3월 11일
재단법인 호남지역사업평가원장

50년 전통 대를잇는 한의원
북경당 한의원
알레르기성 비염
축농증·코피 해결
비만클리닉
한의학 박사 박상준 원장
동신대학교 외래교수 역임


진료문의 062)227-7575
진료시간
평 일 : 오전9시~오전7시
토요일 : 오전9시~오전4시
일요일휴진,공휴일은 오전진료

무등빌딩임대
무등산이 보이는 최상의 조망권,
지하철 역세권에 위치한 편리한 교통권,
금융지역, 상업지역이 함께 어울어져있는
업무의 편의성,
신형 주차시설 완비·중앙 공급식
냉·난방시설,
쾌적한 업무
환경

·면 적 : 330평 / 층
(분할임대 가능)
·용 도 : 사무실, 판매시설
임대문의 062-222-0527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이전안내
광주한약도매시장(주)
정 산 한 약 방
한약·국산·수입한약재
한방에 대한 모든 것이 준비
되어 있습니다.
이전약도


광주광역시 동구 계림1동 553-14
062)223-3399 / 223-6664